



진인사대천명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합창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서울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했다. 같은 시간 후보 부인들도 전국 절을 찾아 합창했다. 다섯번째부터 민주당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인 이순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부인 오선혜 씨. /연합뉴스

깜깜이 기간...막판 가짜 뉴스·비방 난무

‘文-해수부 세월호 거래’ SBS 오보 해명에도 안·홍 공세 국민의당, 洪발 가짜뉴스 살포 고발·文 아들 의혹 다시 제기

대선이 막판으로 가면서 각종 비방전과 가짜 뉴스 등이 난무하면서 혼탁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우선 ‘해양수산부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눈치를 보느라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SBS의 보도를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고,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경위를 밝히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광온 공보단장은 3일 “세월호 인양이 문 후보 측과 관련된 것처럼 보도한 SBS에 강력히 항의하며 해수부 일부 공무원의 공작적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며 “해당 보도에 등장한 해수부 공무원의 신분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도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날 “기술적 문제로 인양이 늦춰지긴 했지만 차기 정권과의 거래 등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인양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문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세월호의 슬픔을 선거에 이용하는 문 후보에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기대할 수 없다”며 “문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당 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은 SBS 보도와 관련, “문 후보 측이 실제로 거래를 시도한 증거가 있다”며 문 후보 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이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등장하는 동영상 공개했다.

지난달 17일 촬영된 동영상에서 오 전 장관은 “(문) 후보와도 몇 번 대화했고 중

양위 정책팀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해양수산부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탄핵 직후 팽목항을 찾아가서 ‘애들이 고맙다’고 말한 뜻을 국민이 이제야 알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BS 김성준 보도본부장은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작성과 편집 과정에서 게이트 키퍼가 미흡, 발제, 집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뉴스가 방송됐다”며 “이로 인해 상처를 받으셨을 세월호 가족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이날 “전남 담양 지역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홍준표발 가짜뉴스’ 살포행위에 대해서도 선관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2007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고용정보원 전 간부 아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김인일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정보원 고위직을 역임한 A씨의 아들이 지난 달 22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린 글을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인의 청탁을 받아 갑자기 들어왔지만 이런 정치행태는 정말 기가 막히다. 그분들 정계는퇴하시라. 우리 유 후보는 힘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보들은 학제개편, 유치원 공교육 문제 등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학제개편 공약에 대해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이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한다”고 지적했고, 심 후보는 “불필요한 논란,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전문가들에게 정말 좋은 공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제 틀을 바꿔야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하고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황영철 탈당 번복...바른정당 잔류

복당파 12명 대선까지 무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3일 전날의 탈당선언을 번복하고 당에 잔류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제 발표했던 바른정당 탈당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전날 탈당) 발표 직후 참으로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동안) 많은 박수와 격려를 보내준 국민으로부터 커다란 비판과 실망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큰 정치 틀 속에서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을 잘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어떤 비난도 달게 받으면서 현실이 어렵더라도 끈기있게 개혁 보수 가치를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황 의원이 잔류 선언을 함에 따라 바른정당은 현재 20석으로 일단은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추가 탈당도 배제할 수 없어 원내교섭단체 붕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한편,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는 ‘복당파’ 의원 12명은 적어도 대선까지는 무소속으로 남아야 하는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文 38%·安 20%·洪 16%·沈 8%·劉 6%

갤럽, 공표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 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선두를 지닌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문 후보는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38%의 지지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안 후보가 4%포인트 떨어진 20%, 홍 후보가 4%포인트 오른 16%로 그 뒤를 추격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포인트 오른 8%,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포인트 오른 6%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문 후보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1위를 지켰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와 진보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안 후보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세를 이어가며 최근 2주간 총 10% 포인트를 잃었다.

반면 홍 후보는 대구·경북과 60대 이상에서 선두에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보수층에서는 43%의 지지를 얻었다.

지지후보별로는 홍 후보 지지층(87%)의 충성도가 가장 높았고 문 후보(71%), 안 후보(68%), 심 후보(45%), 유 후보(41%)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목표할당 사례수는 지난 1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 처리한 인원이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선거일 전 6일(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지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2일까지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박지경기자 jkpark@

마지막 TV 토론도 ‘검증’ 보다 ‘공방’

洪 “劉 덕이 없어 동료들 탈당”...安 “패권주의가 마지막 적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이하 기호 순) 등 5당 대선 후보들은 지난 2일 밤 마지막 TV토론에서 계파 패권주의와 적패 정신, 바른정당 탈당사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대선후보들은 이날 토론 초반 애초 주제인 복지 및 교육, 국민통합 등 사회분야에 대한 정책검증에 치중했지만 중반을 넘어가면서 정치공방을 주고 받았다.

우선, 안 후보는 문 후보를 겨냥, “계파 패권주의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적패라

고 생각한다. 까리까리 나눠 먹는 것이 계파 패권주의 아닌가”라며 “문 후보를 도왔던 전직 당 대표들이 전부 당에서 나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 후보는 “그렇게 당을 쪼갬 분이 안 후보이지 않나”라며 “지금 민주당은 뿔뿔 뿔쳐있지 않다. 저는 통합이란 국민통합을 하는 것인지 정치권끼리 손잡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두 후보 간의 공방전에 끼어들며 “토론하는 것 보다 1, 2중대가 맞네.

방금 보니까 문 후보가 1중대, 그 다음에 안 후보가 2중대가 맞다”면서 두 후보를 동시에 공격했다.

유 후보는 홍 후보에게 “예컨대 한때 입에도 담기 힘든 양박(양아치 친박)이라고 했다가 그 세에 못쳐서는 탄핵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막말로 나무라는 데 지금 홍 후보가 하는 게 진짜 보수 의 제대로 된 모습이나”고 비판했다.

이에 홍 후보는 바른정당 집단탈당 사태를 거론하며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만나 ‘왜 나오려고 하나’ 물어보니,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한다”고 반격했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광산구 오선동 공장(진곡산업단지내)



대지 2531평
건물 753평

최저가 4,278,000,000
감정가 6,112,000,000

담양 담양읍 삼다리, 대로점



토지 523평
개발축진지구

최저가 311,000,000
최고가 311,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



토지 1417평
건물 484평

최저가 321,000,000
최고가 321,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건물 577평

최저가 2,521,000,000
최고가 4,502,000,000

서구 화정동 원룸(화정역인근)



토지 94평
대지 157평

최저가 549,000,000
감정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정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